

22.12.14.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차 회의

모두 발언

2022. 12. 14. (수) 10: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의 의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킥오프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은
변화하는 경제상황 및 현안에 맞추어
신산업 육성^①, 시장실패 보완^②, 위기시 시장안정^③ 등
주어진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①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신산업 품목군을 모아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지정하고
해당분야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17년 20.4조원→ ‘21년 54.5조원)

* ② 시장 공급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 앞 투자금융 지속확대(‘17년 0.65조 → ‘22년* 1.8조)

* ③ 코로나·3高 위기 등에 대응하여 초저금리대출, 회사채·CP 매입 등 긴급조치 수행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주요 공급분야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비중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전략과제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주요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경쟁국에 대해 핵심기술이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 성장전망이 있는 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정책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재정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로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II. 향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 방향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에서 산업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과 필요자금 수요를 제시하고,

국가전체적인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원 방식을 논의·검토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은,
각 부처에서 제시해주신 산업 전략 방향과,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반영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금일 협의회 논의를 거쳐
연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간 협약식을 통해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일방적인 자금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업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부처가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거나
업계에서 공동조성한 재원을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면,
정책금융기관은 우대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협업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하는 계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